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를 키운 우리 당의 령도업적

최 광 일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10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준공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직력과 규률성이 강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것은 몇십, 몇백만kW의 전기를 얻는 것에 비할수 없는 커다란 승리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청년문제가 제일 난문제로 나서고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당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이 되고있다.

우리 당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품도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나라는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를 키운 우리 당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청년대오를 주체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계승자들의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킨것이다.

청년문제이자 혁명의 계승문제이며 혁명위업계승에서 중요한것은 사상적혈통, 신념의 피의 계승이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전통,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고 변함없이 계승하여온 여기에 조선청년운동의 더없는 자랑이 있고 크나큰 영광이 있다.

우리 당은 청년대오를 주체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신념의 피줄기로 영원히 간직하고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중앙과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하는 수령결사옹위의 맹장들의 대부대로 억세게 키워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우리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것을 청년교양의 총적목표로 제시해주시고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심어주어 우리 청년대오를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5대교양을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기본 내용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의 특성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쾌기있게,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우리 당의 주체사상교양과 위대성교양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준비시켜나갔으며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반체제급교양, 도덕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청년들을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참된 애국자, 불굴의 혁명신념과 투철한 반체제급의식을 지닌 열혈투사, 높은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문명한 사회적 인간으로 키워나갔다.

우리 당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깊이 체득시키는것을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새 세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다.

주체103(2014)년 10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의 엄혹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아야 당과 수령의 위대성,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투쟁의 구호가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곳마다에서 세차게 맥박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청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온 나라에 타번지는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청년들은 타래치는 불길과 쏟아져내리는 산사태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위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자기 한몸 서슴없이 내대며 《처녀어머니》가 되어 부모 잃은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키우는 미풍선구자들로 자라났으며 혁명적인 사상문화, 청년문화와 도덕을 창조해나가는 시대의 선도자로, 사회주의계급진지를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갔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문제해결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청년교양에 큰 힘을 넣어온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청년대오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하고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맹장들의 대부대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진 청년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되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를 키운 우리 당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년대오를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킨것이다.

혁명투쟁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 당의 참된 전위투사로 키우기 위한 훌륭한 학교이다.

오늘 눈부시게 비약하는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청년들을 부르고있다. 세월을 주름잡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격전장들은 피끓는 청춘들의 활무대이다.

우리 당은 주체혁명의 제1선참호에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부강조국건설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혁명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이 조국

수호와 강국건설의 전위투사들로 역세계 자라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에서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에 선 인민군군인들을 높이 내세워주시었으며 온 나라의 남녀청년들이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전민항쟁에 용약 펼쳐나 침략자들을 단매에 격멸소탕하고 자기의 거리와 마을, 학교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게 튼튼히 준비해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으키신 전투훈련의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 다각화의 열풍속에서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김일성-김정일** 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로, 천만대적도 무쇠주먹으로 단매에 부셔버리는 최정예강군의 전투원들로 역세계 자라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비상이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북부철길개건공사를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에 용약 달려나가 진격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며 첨단돌파전에서 선구자가 되어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었다.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전력적인 령도밑에 백두의 청춘들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이 되는 주체104(2015)년에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불굴의 투쟁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 부강조국건설의 역센 기둥으로 자라난 조선청년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자력자강의 거대한 위력을 총폭발시켜 짧은 기간에 방대한 함북도북부피해복구전투를 벌리면서도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려명거리를 회한하게 일떠세움으로써 주체조선의 위력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 청년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조선속도,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수가 되어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해나갔으며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고 혁명적인 노래포성, 새로운 체육성과들로 온 나라를 영웅적창조정신과 투쟁기풍, 혁명적량만과 젊음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청년들이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의 앞장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비상이 높여나가도록 한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청년대오는 최정예강군의 맹수들로,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불태우는 당정책관철의 선구자들로 역세계 자라나고 우리 조국은 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부강번영하는 청년강국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되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를 키운 우리 당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년대오를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열혈의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킨것이다.

우리 당의 열화같은 청년사랑과 믿음은 청년들모두를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조국을 떠받드는 역센 기둥으로, 주체혁명의 청년영웅, 불사조, 아름다운 인간으로 키우는 자양분이다.

우리 당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나라의 중대사도 서슴없이 맡겨

주는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백승의 청년대오를 키워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수백만 청년들을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청년전위들로 억세계 키워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이 삼가 올린 편지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친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이 담긴 친필서한도 보내주시며 청년들을 령도자와 뜻과 정을 함께 하는 전위투사로 키워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5(2016)년 8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제9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을 성대히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청년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축하문도 보내주시면서 모든 청년들을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프락에 이어놓고 당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는 우리 당의 청년전위로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우리 당의 청년사랑은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럽게 내세워주는 가장 열렬한 사랑이며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사랑이다.

위험천만한 바다길을 헤치시고 장재도의 군인들을 찾으시였으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모두를 저 하늘이 들리도록 두팔들어 높이 떠받들어주고싶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사랑은 만사람을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청년들은 훈련장들마다에서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켰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창조의 거인, 만리마기수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강국과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청년들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헌신속에 공화국을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운 청년과학자들도,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며 폭풍쳐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들도 백두의 혁명신념, 혁명투지로 싸워나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다.

참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 우리 청년대오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로 억세계 자라나게 된것은 전적으로 청년중시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계 키워준 위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온 나라의 모든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결사보위하며 당정책관철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청년강국, 청년문제